

What is the essence of true religion? The Bible gives more than one answer to this question, or at least it expresses the same answer in several different ways. The prophet Micah said that the Lord requires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Micah 6:8). Jesus said that the two greatest commandments are to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to love your neighbour as yourself (Mathew 22:37-40). The apostle James said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or maybe he said the same thing and made it more specific: “Religion that God our Father accepts as pure and faultless is this: to look after orphans and widows in their distress and to keep oneself from being polluted by the world” (James 1:27). Caring for women who are alone in the world is one of the best ways to honour God and love your neighbour. It is Christianity at its finest. Taking care of widows is pure and faultless religion.

진정한 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가지 나와있습니다 혹은 적어도 같은 답을 여러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미 6:8).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큰 두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마 22:37-40). 사도인 야고보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면 같은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 일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 1:27). 이 세상에 혼자인 여성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과부를 돌보는 것은 순수하고 결점이 없는 종교입니다.

This is why Paul’s letter to Timothy contains such extensive teaching about widows. As we saw a few weeks ago when we looked at verses 1-8 of 1 Timothy 5, Paul has already explained what makes a widow truly a widow (5:3, 5-6), and has commended true widows to the ministry of prayer (5:5). He has also commanded Christians to provide for their own relatives (5:4, 7-8). In the verses we come to this morning (vv.9-16), Paul explains how the church should treat the widows left to its care. Apparently, the early church was systematic about doing this, because in v.9 Paul refers to a “list of widows”. What was this list for? Certainly to make sure that Christian widows received their daily bread. Widows were registered so that they could be helped. It is the duty of the church to “help those widows who are really in need” (v.16). The model for this was the first church in Jerusalem, which, you will remember from Acts 6, had organised a daily distribution of food from very early on. A church needs to keep track of its widows – where they live and what they need. One church of which I was a member made sure that every widow living on her own or in a nursing home had a visit each week from a minister or elder.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에는 과부에 대한 가르침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디모데전서 5 장 1-5 절을 살펴볼 때 봤듯이 바울은 이미 참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을 했고 (딤후 5:1, 5-6), 참 과부들에게 기도 사역을 명령하셨습니다 (5:5). 바울은 또 크리스천들 에게는 각자 개인의 친척을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5:4, 7-8). 오늘 아침에 살펴볼 구절 (9-16 절) 에서 바울은 교회가 돌봐야 할 과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9 절에서 바울이 “과부 명부”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초대교회는 과부들을 체계적으로 돌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명부는 왜 사용된 것일까요? 크리스천 과부들이

(1 Timothy 5:9-16; 1 Corinthians 7:1-9; 32-35 and 39-40)

일용할 양식을 확실히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부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함” (16 절)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이것의 모델이 된 곳은 사도행전 6 장에 나왔던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매일 음식 배급을 준비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과부들에 대해 –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니던 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께서 혼자 살거나 양로원에 사시는 과부들을 매주 꼭 심방 했었습니다.

There is another reason for keeping a list of widows, however. These women seem to have had some special ministry in the church. John Calvin argued that the roll of widows was for both support and service. A good example of the position of widows in the early church comes from the ministry of Dorcas in the city of Joppa. Dorcas was exactly the kind of woman Paul goes on to describe in v.10, a woman who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Acts 9:36).

하지만 과부의 명부를 만드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교회에서 특별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 칼빈은 과부의 역할은 도움을 주는 것과 섬기는 것, 둘 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과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예는 옴바의 도르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도르가는 10 절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여성의 모습 그대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행 9:36).

It is clear from the account of Dorcas in Acts 9 that widows had a distinctive identity within the early church. There were large numbers of them, and by the third century they formed an official order in the church. The widows “gave themselves to prayer, nursed the sick, cared for the orphans, visited Christians in prison, evangelized pagan women, and taught female converts in preparation for their baptism” (John Stott). By the Middle Ages, however, few if any churches followed the guidelines given in 1 Timothy 5. Doubtless one reason why the contemporary church is so confused about the role of women is that this pattern for women’s ministry has been neglected, or even forgotten altogether.

사도행전 9 장에 나오는 도르가를 통해서 과부들은 초대교회에서 뚜렷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집니다. 과부들의 수는 아주 많았고 3 세기부터는 교회에서의 공식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과부들은 “기도에 힘쓰고, 아픈 이들을 간호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감옥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면회를 가고, 비기독교인 여성들을 전도하고, 개종한 여성들을 침례 받기 위해 준비도 시켰습니다” (존 스토티). 하지만 중세시대가 됐을 때에는 이미 디모데전서 5 장에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패턴의 여성 사역이 방치되고 아예 잊혀 지기도 한 것이 요즘 교회가 여성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1. Widows Who Belong on the List vv.9-10)

The main reason for thinking that these widows must have been active in some form of Christian ministry is the way they are described: “No widow may be put on the list of widows unless she is over sixty, has been faithful to her husband, and is well known for her good deeds, such as bringing up children, showing hospitality, washing the feet of the saints, helping those in trouble and devoting herself to all kinds of good deeds” (vv.9-10). These qualifications would seem overly strict if a widow had to meet all of them before she could get any help from the church. Perhaps they make better sense as qualifications for women to serve in some form of ministry in the church.

(1 Timothy 5:9-16; 1 Corinthians 7:1-9; 32-35 and 39-40)

크리스천 사역에 있어서 이 과부들이 활동적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딤후 5:9-10). 교회에서 도움을 받기 전에 이 자격요건을 다 갖추어야 한다면 이것은 너무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들은 교회에서 어떤형태의 사역을 할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Three requirements are given. First, maturity, or seniority. Why must the widow be at least sixty? In the ancient world sixty was sometimes viewed as the age at which a person reached full maturity. As one commentator has said, “Sixty was the recognized age in antiquity when one became an “old” man or woman, and a woman’s sexual passions might be deemed to have lost their dangers then”. Presumably, women under the age of sixty could work to support themselves, or else remarry. 세가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첫번째는 성숙함, 또는 연장자 여야 하는 것 입니다. 왜 나이가 적어도 육십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고대시대에는 나이가 육십이 되면 사람이 완전히 성숙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한 해설자가 말했듯이 “고대에는 나이가 육십이 되면 노인이 됐다고 인정이 되고, 여자의 성욕의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보는 나이였습니다”. 아마 육십이 되지 않은 과부는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하면 재혼했을 것 입니다.

The second requirement to be enrolled as a widow is fidelity. Only a widow who “has been faithful to her husband”, who has been the wife of but one husband, is eligible for the list. Part of what prepared her for faithful ministry was a faithful marriage. The third requirement is charity: she must be “well known for her good deeds”, which Paul proceeds to list in logical order. He begins with bringing up children, because raising a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work many Christian women are given to do. But the good work of bringing up children is not limited to a woman’s own children. There were many orphans in the ancient world, as there are today, and a godly woman, as she has opportunity, will want to extend God’s loving care to them. And maternity leads to hospitality. Once a woman gets her house in order, she is ready to welcome strangers. Hospitality was especially important in the ancient world, where travel was inhospitable, and even dangerous. The first thing a good hostess did for her guests in the ancient world was to remove their sandals and wash their dusty feet. This task was usually performed by slaves, but a widow known for her good deeds would do it herself. Foot washing is a reminder that the godly widow patterns her life after the example of Jesus Christ, who washed his disciples’ feet in the Upper Room on the night before his crucifixion. Washing his disciples’ feet was an act of great humility and selflessness that pointed forward to the greatest act of humility and selflessness – the pouring out of his life blood for their sins on the cross. But not just for their sins, but for ours – yours and mine- as well.

과부로 등록되기 위한 두번째 조건은 충실함 입니다. 오직 “한 남편의 아내였던” 과부만이 이 명부에 올라갈 자격이 있습니다. 충실한 결혼생활을 통해 충실한 사역을 할 준비가 되는 것 입니다. 세번째 조건은 자선입니다: 과부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선한 행실들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가족을 양육하는 것이 많은 크리스천 여성들에게 주어진 일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대시대에는 고아들이 많았고 지금도 고아들은 많기

(1 Timothy 5:9-16; 1 Corinthians 7:1-9; 32-35 and 39-40)

때문에 경건한 여성은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보살피고 싶어할 것입니다. 엄마로서 사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성이 가족의 질서를 잡아 놓으면 나그네를 환영할 준비가 됩니다. 손님 대접은 여행이 어렵고 위험하기까지 했던 고대시대에는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그 시대에 좋은 여주인이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손님의 신발을 벗기고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원래 종들이 하는 일이지만 선한 행실로 알려진 과부는 직접 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경건한 과부들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겸손과 헌신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더 큰 겸손과 헌신을 다한 -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 - 이 일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죄 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 여러분과 저 - 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Finally, a true widow “helps those in trouble and devotes herself to all kinds of good deeds”. This list is not meant to be exhaustive. A godly woman is godly in every way. Such good deeds begin at home but then spread all around the community. One of the reasons the church has always been a leader in mercy ministry is that Christian people – especially Christian women – have devoted themselves to all kinds of good deeds.

마지막으로 참 과부는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입니다. 이 목록이 선한 행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경건한 여성은 모든 방면에서 경건해야 합니다. 이런 선한 행실은 집에서 시작하지만 사회의 모든 곳으로 퍼집니다. 교회가 항상 자비 사역에 앞서게 된 것은 크리스천들이 - 특별히 크리스천 여성들이 -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To take just one example, consider the life and ministry of Elizabeth Fry. In 1813 a woman named Anna Buxton took Fry to visit London’s infamous Newgate Prison. When they arrived, the two women were nearly overwhelmed by the miserable conditions. Three hundred women, with their young children, were shut up together in four rooms – without sufficient clothing, sleeping on the floor, in the cold of winter. They were allowed to receive money, and to buy as much intoxicating drink as they liked in the prison. The result was that those four rooms were like dens of wild beasts. The two women did not know what else to do except to kneel down to pray. As they did so, the prisoners gathered around to join them. Elizabeth Fry devoted the last thirty years of her life to sharing the gospel with those women in word and deed. At first, the authorities – the magistrates – tried to stop her, because they thought the situation was hopeless. But Fry persuaded them to let her try. She began by sewing woollen garments for the prisoners. She started a school for their children. She made the women agree not to swear, beg or quarrel. She brought supplies so they could do needlework. Every morning and evening she gathered them for Bible reading and prayer. The whole character of Newgate Prison was radically transformed. When some time later the magistrates visited again the prisoners were sitting quietly at work, and listening to reading, decently dressed, with calm cheerful faces. From this first prison, these plans of helping the female prisoners spread throughout England.

한가지 예를 들기 위해 엘리자베스 프라이의 인생과 사역을 살펴봅시다. 1813 년도에 안나 벅스톤이 처음으로 프라이를 데리고 악명높은 뉴게이트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열악한 환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300 명의 여성들과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

(1 Timothy 5:9-16; 1 Corinthians 7:1-9; 32-35 and 39-40)

4 개의 방 안에 다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 옷도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추운 겨울에 바닥에서 자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들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원하는 만큼의 술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4 개의 방들은 죄수들의 동굴들과 같았습니다. 이 두 여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니 죄수들도 모여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라이는 그 인생의 마지막 30 년을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말로, 또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치안판사들이 이 감옥의 상황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프라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시작은 죄수들을 위해 모직 옷을 만드는 것 이었습니다. 죄수들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시작했습니다. 또 죄수들이 욕, 구걸, 그리고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죄수들이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죄수들을 데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뉴게이트 감옥은 급격히 변화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치안판사들이 다시 감옥을 방문 했을 때 죄수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차분하고 생기 있는 얼굴로 조용히 앉아서 일을 하고, 성경 낭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첫번째 감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 죄수들을 도와줄 이 방안들은 영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This was only the beginning of Fry's work. Among many other things, she established the first "Nightly Shelter for the Homeless in London". Elizabeth Fry was exactly the kind of woman Paul describes in 1 Timothy 5:10, a woman "devoting herself to all kinds of good deeds". By the time she was sixty, she had a reputation for such works. This is because she did not wait until she was sixty to start doing them. Her work in Newgate Prison began when she was in her early thirties. What qualifies a widow to receive support from the church and to perform a service for the church is the work of a lifetime.

이것은 프라이의 사역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역 중 하나는 "런던의 노숙자들을 위한 야간 쉼터"를 설립한 것 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라이는 정확히 바울이 디모데전서 5 장 10 절에서 설명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여자였습니다. 프라이가 60 살이 됐을 때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프라이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 60 살까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게이트에서 그녀가 일하기 시작한 것은 30 대 초반이었습니다. 과부에게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일생을 바쳐 한 일을 통해서 입니다.

Younger women, I encourage you to devote yourselves to all kinds of good deeds. Get involved in ministries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mentor teenagers, be hospitable, volunteer to help in schools and hospitals, help with meals and child-minding for mothers who are sick or disadvantaged, care for the homeless, and pray for the work of the church.

젊은 여성분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헌신 하도록 권합니다.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에 참여하고, 십대들의 멘토가 되고, 손님 대접을 잘하고, 학교와 병원에서 봉사하고, 아프거나 빈곤한 엄마들을 위해 식사 준비와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돕고, 노숙자들을 돌보고 교회의 일을 위해 기도 하십시오.

(1 Timothy 5:9-16; 1 Corinthians 7:1-9; 32-35 and 39-40)

2. Too Young to Make the List (vv.11-15)

Not every woman made Paul's list. Some were not eligible to serve in public ministry or even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Some did not qualify for help because they had not been faithful to their husbands or active in good works. Or they were too young: "As for younger widows, do not put them on such a list" (v.11). What was Paul's rationale for this restriction? It was based on both biological and religious reasons: "For when their sensual desires overcome their dedication to Christ, they want to marry. Thus they bring judgment on themselves, because they have broken their first pledge" (vv.11-12). Paul is simply referring to a woman's natural sexual desire, which is given by God and finds its proper fulfilment in marital intercourse. He is saying that the natural urge to marry will return to these younger widows, with the very real danger that their natural desires will overrule their religious ones. This happened when these younger widows were so bent on marriage that they were willing to marry even unbelievers. As a result their new marriages would actually lead them away from Christ. In their wilful disobedience in marrying unbelievers (contrary to God's command to Christians, "do not be yoked together with unbelievers", in 2 Corinthians 6:14 and Paul's words in 1 Corinthians 7:39), they have broken their first pledge, literally their first "faith". That is, they have broken their original commitment of faith to Jesus Christ as Lord of their lives, including their married lives. The warning that Paul gives here applies more generally to all single Christians, doesn't it – not just widows. It is possible for the desire to get married to outweigh your desire to serve Christ. Sometimes single Christians are so determined to get married that not even their relationship to Christ can stand in their way. They may put their lives on hold until God provides a spouse (which he might never do, of course). Or they may use poor judgment about dating relationships, even courting unbelievers – and then rush off and marry contrary to God's will. There were young widows like that in the early church, too, and they brought judgment on themselves.

모든 여성이 바울의 명부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교회 일을 할 자격, 또 재정적인 도움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너무 젊어서 자격이 없기도 했습니다: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지니" (11 절). 이 제한에 대한 바울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생물학적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가 둘 다 있었습니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11-12 절). 바울은 그저 여성의 자연적인 성욕, 하나님께서 주셨고 부부간의 관계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입니다. 바울은 이 젊은 과부들에게 결혼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가 돌아올 것이고 자연적인 욕구가 종교적인 욕구를 누를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과부들이 너무 결혼하고 싶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도 꺼리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재혼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 의도적인 불순종을 행함으로 그들의 첫 약속, 문자 그대로 첫 "믿음"을 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고후 6:14), 그리고 고린도 전서 7 장 39 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통해 이것을 볼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을 포함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는 그들의 믿음의 약속을 깬 것 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하는 경고에는 과부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독신인 크리스천에게 해당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보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가끔 결혼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너무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해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이것을 막을 수 없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실 때까지 (물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연애하는

(1 Timothy 5:9-16; 1 Corinthians 7:1-9; 32-35 and 39-40)

것에 있어서 부족한 판단력으로 심지어 믿지않는 사람과 연애하기도 합니다 –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급히 결혼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젊은 과부들이 있었고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The other danger of putting young widows on the church roll is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waste their time: “Besides, they get into the habit of being idle and going about from house to house. And not only do they become idlers, but also gossips and busybodies, saying things they ought not to” (v.13). These women sound like real social butterflies. Perhaps, in our age, they would be spending all their time on social media in its many different forms. Here the Bible warns against the sin that people often fall into when they have nothing better to do: laziness or idleness. Human beings were created to work. Work is a creation ordinance. This does not mean that every Christian has to work at a paying job, but every Christian must work. People who depend on one form of public welfare or assistance or another need to find something productive to do with their time – either at home or in the community. If nothing else, there is always plenty of volunteer work to do at the church.

젊은 과부를 교회 명부에 올리는 것의 또다른 위험성은 그들은 시간낭비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13 절). 이 여자들은 정말 사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었다라면 여러가지 소셜 미디어에서 시간을 다 보냈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별 할 일이 없을 때 짓기 쉬운 죄에 대해 경고합니다: 게으름 또는 나태함. 인간은 일을 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창조규례 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크리스천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공공 복지나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집에서 또는 사회에서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면 교회에서도 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언제나 많습니다.

Idleness leads to other sins – in this case, gossip. In Ephesus, as such women made their way from house to house they heard all kinds of interesting news, not all of which should have been repeated – but it was! Gossip in all its varieties is a common problem in the church, perhaps especially among Christian women. With technological advances – mobile phones,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 you can be a busybody from the privacy of your own home, or your car. It is good for Christians to stay in close touch with one another, of course, but not just to have something juicy to talk about. Instead, intimate conversations should be directed toward encouraging and building others up in their faith, helping those in need, sharing the gospel and setting an agenda for prayer. Gossip destroys others, especially in their relationships. At some level, gossip has contributed to nearly every conflict and division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게으름은 다른 죄로 이어집니다 – 이 경우에는 잡담 입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여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온갖 흥미로운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될 소문도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여러 종류의 잡담과 소문은, 특히 크리스천 여성들 가운데서, 교회의 혼한 문젯거리 입니다. 핸드폰, 인터넷, 소셜 미디어와 같은 기술이 많이 발전함으로써 각자의 집이나 차 안에서조차 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들이 서로 자주 연락하는데 사용하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가십거리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친밀한 대화들은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키워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제목을 나누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잡담은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그들의 관계들을,

무너뜨립니다. 잡담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거의 모든 다툼과 분열에 어느정도는 한몫을 했습니다.

It is because the sins of idleness and gossip are so destructive that Paul proposes a solution: "So I counsel younger widows to marry, to have children, to manage their homes and to give the enemy no opportunity for slander" (v.14). As a general rule, it is good for young widows not just to devote themselves to the care of their families but to remarry. Clearly Paul was committed to marriage as an institution of God. And, although people in the ancient world commonly believed that it was disloyal for widows to remarry, this is clearly not the biblical view. What Paul says about remarriage in 1 Timothy 5 is fully consistent with what he says about singleness in 1 Corinthians 7: "I wish that all of you were as I am. But each of you has your own gift from God; one has this gift, another has that. Now to the unmarried and the widows I say: It is good for them to stay unmarried, as I do. But if they cannot control themselves, they should marry, for it is better to marry than to burn with passion" (vv.7-9). Notice that widows are specifically mentioned as women who might be better off getting married. The single life is a good life, especially when it is devoted to fruitful Christian service (1 Corinthians 7:32-35). Indeed, singleness is Paul's personal preference for those who are so gifted. But there are many good reasons to get married, among them the danger of sexual temptation. Not only does Paul advise the younger widows to marry but also to have children. Child-bearing is not the only, nor even the primary, purpose of marriage (Genesis 2:17), but it is certainly a natural and significant part of it. In addition, they are to "manage their homes", indicating that Christian wives have a large sphere of influence and freedom in the area of home-making and child-rearing.

게으름과 잡담의 죄가 너무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바울은 해결책을 한가지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4 절). 일반적으로 젊은 과부들은 가족들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울은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고 확신했습니다. 고대시대 사람들은 흔히 과부가 재혼하는 것이 불충실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5 장에서 재혼에 대해 한 얘기는 고린도 전서 7 장에서 독신에 대해 설명한 것과 충분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7-9 절).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을 여자들 중에 특별히 과부들을 언급한 것에 주목 하십시오. 독신으로 사는 것은 좋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의 열매를 맺는데 헌신하면 말입니다 (고전 7:32-35). 독신은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성욕을 포함해 결혼을 할 좋은 이유들이 아주 많습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 결혼만 하라고 하지 않고 아이도 낳으라고 권고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결혼을 할 유일한 이유가 아니고 주된 이유도 아니지만 (창 2:17) 결혼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중요한 부분 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집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아내들이 가사와 아이 양육에 있어서 큰 영향력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But what happens if these instructions are ignored? Paul wants to make sure that the enemy – the devil - is given no opportunity for slander. Paul is always concerned for the public image of the

(1 Timothy 5:9-16; 1 Corinthians 7:1-9; 32-35 and 39-40)

gospel and the church. Paul's cautionary words are based on local knowledge, since he continues, "some have in fact already turned away to follow Satan" (v.15). It seems that some widows had done more than just remarry. In their haste they had been willing to marry non-believers, contrary to Christian standards (1 Corinthians 7:39) and so strayed back into Satan's kingdom in the world. 하지만 이 지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대적(마귀) 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과 교회의 대중적인 이미지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이 경고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5 절) 라고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부들은 재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크리스천의 기준에 반대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고 (고전 7:39), 마귀의 세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This whole section of 1 Timothy is mainly intended to make sure that widows get the care they need. So after explaining that some widows do not need any help, Paul closes with a reminder that others need to be helped after all: "If any woman who is a believer has widows in her family, she should help them and not let the church be burdened with them, so that the church can help those widows who are really in need" (v.16). The important thing is for Christians to provide for their relatives. The family is the first line of defence for the poor. The second line of defence for the poor is the church. One of the advantages of belonging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is always having family to help provide for one's needs. As I said a few weeks ago when we began looking at chapter 5 of 1 Timothy, in countries like ours where government services for the aged and poor exist, the churches and their families should do what they can to support, in material and caring ways, their needy members. Although 1 Timothy 5:3-16 is, in the first place about widows, it can be applied quite effectively to other groups within the Christian community such as the unemployed, those with disabilities, the homeless and the terminally ill. May the Lord help us to do that in the life and work of our church.

디모데전서 전체가 주로 과부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렇기때문이 어떤 과부들은 도움이 필요 없다고 설명 한 뒤 바울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 주게 하려 함이라" (16 절).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친척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 입니다. 가족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할 첫 방어선입니다. 두번째 방어선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있는 것의 이점 중에 하나는 언제나 필요함을 채워줄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전 디모데전서 5 장을 시작했을 때 제가 말했듯이 우리나라와 같이 가난하고 나이든 사람들을 위한 정부지원이 있는 나라에서는, 교회와 그들의 가족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보살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3-16 은 과부들에 대한 것이지만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실업자, 장애가 있는 사람, 노숙자, 그리고 말기 환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Amen